

삼성준법위 첫 권고 “JY가 나서 승계 등 法준수 약속을”

JY 등 7개 계열사에 권고문 송부
‘경영권 승계’ 관련 논란 사과하고
준법의무 위반 국민에 공표 권고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 등도 포함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뉴 삼성’을 위한 첫번째 행동안을 제시했다. 이제 부회장이 직접 나설 것을 골자로 했다.

위원회는 11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30일 이내에 회신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를 통해 최고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준법 의제를 논의한 결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개의 제제를 선정하고,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 의견을 담아 권고 사항을 만들었다.

위원회는 먼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제용 부회장의 행동을 촉구했다. 준법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국민들에 반성과 사과뿐 아니라,



김지형 전 대법관(현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관계사는 일반 주주 이익을 지배주주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제시했다.

노동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라고 권고했다. 계열사들이 노동법 규칙 위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반성과 사과 및 노사간 충분한 소통을 약속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 종식을 선언하는 등이다.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이어서 시민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이 부회장과 관계사가 시민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과 관계사가 직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직접 공표해야 한다고 권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작년 남미 스마트폰 10대 중 4대는 삼성

지난해 남미 스마트폰 시장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1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남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38.0%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삼성전자, 모토로라,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했으며, LG,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다소 하락했다.

2위인 모토로라는 15.5%로 삼성과 22.5%의 격차를 보였다. 3위는 화웨이(12.9%), 4위는 LG전자(4.4%), 5위는 애플(3.6%)이 차지했다. /구서윤 기자

갤러리아 집이야… LG 2020년형 올레드 TV “‘헤이카카오’ LG TV 볼륨 올려줘”

55형·66형 출시… 내달 77형 추가
이달 말부터 북미에서도 판매 스타트

LG전자는 2020년형 LG 올레드 AI 씽큐를 본격 출시하고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LG올레드 AI 씽큐는 올 초 CES 2020에서 TV부문 ‘최고상’을 받은 제품으로, 11일 국내에 먼저 출시된다. 55형과 66형을 먼저 출시하고, 다음달 77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갤러리 디자인’을 적용한 신제품도 나온다. 고객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해 TV를 설치하는 공간까지 고려했다. 또 다른 ‘폼팩터’ 혁신인 셈이다. 화면과 구동부, 스피커와 벽걸이 부품을 내장하고, TV 전체를 벽에 밀착시켜 몰입감과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다음달에는 ‘월페이퍼’ 디자인 신제품도 출시한다. 두께가 4mm에 불과한 제품으로 그림을 한장 붙여놓는 수준이다.

인공지능은 더 강력해졌다. 새로운



2020년형 LG 올레드 TV.

“‘헤이카카오’ LG TV 볼륨 올려줘”

카카오엔터프라이즈-LG전자

스마트스피커 카카오미니 연동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LG전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카카오의 인공지능(AI) 기술을 LG의 가전 제품들과 연결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LG전자와 새롭게 출시하는 2020년형 올레드, 나노셀, 울트라HD TV 전 모델에 카카오의 스마트스피커 카카오미니를 연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미니를 통해 음성 명령으로 쉽게 TV를 제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으며, 카카오미니의 다양한 기능을 LG TV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이용자는 헤이카카오 앱을 설치하고 카카오미니와 LG TV를 연동한 후 “헤이카카오”로 스

피커를 호출해 원하는 기능을 말하면 된다. “TV 전원 켜줘”, “TV 화면 밝게 해줘”, “TV 볼륨 올려줘”, “TV 채널 위로, 아래로” 등 명령어로 전원·볼륨·채널·화면 밝기 등 기본적인 TV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프로그램 및 채널, 콘텐츠 검색, 콘텐츠 추천도 이용 가능하다. “TV에서 00000 틀어줘”와 같은 명령어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VOD를 검색할 수 있다. 카카오미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날씨, 뉴스, 환율, 정보검색 등 다양한 기능도 LG TV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한편,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자동차, 아파트, 가전, 흡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손잡고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 기술을 활용해 일상의 모든 영역에 AI를 더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SK이노, 화상면접으로 채용 재개… 고용시장에 ‘활기’

SK이노베이션이 코로나19로 멈춘 채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진행 중인 모든 채용에 화상면접을 도입해 오프라인 면접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경색된 재계 채용이 재개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이 도입한 화상면접은 지원자가 면접장소로 찾아와 대면하는 방식을 대신하는 것으로, 지원자는 자

택 등에서 노트북, 데스크톱 등 IT 기기를 통해 화상면접 프로그램에 접속해 면접관과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이 화상면접을 도입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면접자들 간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면접 진행을 위한 면접관의 전국 사업장 방문 불필

요 ▲외부인으로부터 사업장 및 구성원의 보건 안전 등 효과가 있다.

이 같은 화상면접은 SK이노베이션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미 SK이노베이션은 채용 업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구직자들의 각종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챗봇’을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삼성전자가 숙면을 돋는 LED 조명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11일 ‘LED 패키지(사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양산했다.

이 제품은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청록색 파장 빛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데이’와 ‘나이트’ 2개 제품으로, 각각 멜라토닌 분비량을 줄이거나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은 인간 수면 주기에 관여하는 물질로, 낮에는 적게 분비돼 신체를 활성화하고 밤에는 충분히 분비해 숙면을 돋는 역할을 한다.

데이 제품은 일반 LED 조명보다 멜

라토닌 수치를 약 18% 줄여준다. 학교

와 사무실,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하면 학습 및 업무 효율을 높여 줄 수 있다. 나이트 제품은 멜라토닌 수치를 일반 제품보다 약 5% 높여 수면의 질도 제고해준다. 휴식이 필요한 집이나 호텔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크기는 업계에서 보편화된 3.0×3.0

mm다. 1800~6500K의 다양한 색온도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LED 패키지가 실내 생활 비중이 높은 현대인들에 자유로운 조명 환경을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웅 기자